굴곡진 역사 지광국사탑, 원주로 환지본처

건축분과 문화재위원회 6월 20일 이전 결정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1911년 日人 의해 일본 반출
한국전쟁 폭격 파손 등 고난
110년 만에 고향인 원주 회귀
최종 이전 장소는 추후 결정

2016년부터 해체 · 보수 작업
모르타르 제거 · 결실부재 대체
올해 중 보수 작업 완료 예정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에 의해 반출됐다가 한국에 돌아왔지만 제자리로 가지 못했던 지광국사탑이 본래 자리였던 원주 법천사지로 돌아간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6월 20일 열린 건축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의 검토 결과 국보 제101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이하 지광국사탑)을 원래 있던 곳인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의 법천사지로 이전을 결정했다"고 6월 21일 밝혔다.

지광국사탑은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사에 세워졌던 고려 국사 해린(海麟, 984~1070)의 승탑이다. 독특한 구조와 화려한 조각, 뛰어난 장엄장식으로 역대 가장 개성적이고 화려한 승탑으로 꼽힌다.

탑, 오욕의 역사를 겪다

문화재적 가치가 높았던 만큼 지광국사탑은 근현대시기 고난의 시간을 겪었다. 일제강점기 당시 자료에 따르면 지광국사탑이 본래 자리인 법천사지를 떠나게 된 시기는 1911년이다. 탑을 매입한 주인은 일본인 와다 쓰네이치로 당시 서울 명동서 일본인이 운영하는 개인병원에 조경용으로 전시하게 된다.

1912년에는 이를 남산 기슭의 저택으로 옮겼다가, 다시 일본 오사카 귀족에게 팔아 불법으로 반출시켰다. 오사카 귀족은 지광국사탑을 자신의 가문 묘지 정원 장식품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이를 안 조선총독부가 반환명령을 내리면서 와다는 탑을 돌려받아 조선총독부에 기증했다.

그래도 지광국사탑은 본래 자리인 법천사지로는 갈 수 없었다. 조선총독부가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가 열린 경복궁의 장식재 구실을 하기 위해 옮겼기 때문이다.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환지본처까지

1911	원주 법천사지 반출 → 서울 명동(무라카미 병원)
1912	서울 남창동 이전(와다 저택의 정원)
	일본 오사카 반출(5월, 후지타 헤이타로 남작)
	국내 반환(10~12월 중)
1915	경복궁 내 조선물산공진회 미술관 앞 정원으로 이전
1923	경복궁 내 경회루 동편 근정문 부근 이전
1932	경복궁 내 해체 및 재건립 (경회루 동편 사정전과 아미산 사이)
1957	국립중앙박물관의 재건보수공사(11월)
1990	국립고궁박물관(당시 국립중앙박물관) 뒤뜰 이전
2016	국립문화재연구소로 해체, 보존처리 중
2019	문화재위원회 원주 법천사지로 이전 결정

6.25전쟁은 지광국사탑에 치명상을 안겼다. 1951년 지광국사탑은 폭탄에 맞아 상륜부와 옥개석이 파손됐다. 당시 피폭으로 탑의 상륜부와 옥개석은 1만2000여 조각으로 쪼개졌다. 전쟁 이후 1957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복원기술자 故 임천 선생이 탑을 복원 · 수리했고, 후에도 해체와 이전을 반복하다 1990년에 이르러서야 국립고궁박물관 뒤뜰로 자리를 잡았다.

해체보수로 새로운 모습을

이후 지광국사탑은 2005년과 2010년 시행된 정기조사와 2014년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2015년 시행한 정밀안전진단 등에서 다수의 균열과 모르타르(mortar) 복원 부위 탈락 등이 확인됐다. 특히, 모르타르로 복원된 옥개석(屋蓋石)과 상륜부는 구조적 불안정까지 더해져 석탑의 추가적인 훼손이 우려되면서 2015년 9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면 해체 · 보존처리가 결정됐다.

이에 자광국사탑은 2016년 3월 22일 해체보고식을 갖고, 4월 5일 해체가 완료돼 국립문화재연구소로 이송됐다.

국립문화재연구소가 확인한 석탑의 상태는 심각했다. 우선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1957년 시멘트 모르타르로 복원한 부분이었다. 전체 탑의 10.6%가 시멘트 모르타르로 복원됐으며, 상륜부와 옥개석에 집중돼 있었다. 특히 옥개석의 경우 48%가 복원 부재로 시멘트 모르타르가 사용됐다. 또한 이를 지탱시키기 위해 59개의 철심이 탑에 박혀 있었다.

석탑의 풍화도 '중간에서 높은 단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백화와 흑화 현상도 상당히 진행됐으며, 탈락 · 박리 · 생물 피해 · 조류 배설물 등의 피해도 확인됐다.

이에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모르타르 제거, 파손 부재 접착을 비롯해 결실된 부재들에 대해 새 돌로 제작하는 등의 보존처리를 해오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석재의 산지(産地) 분석, 결실부재에 대한 복원도상 연구, 무기질 결합재의 성능개선 연구 등 부차적인 성과도 보이고 있다.

탑 이전에 남은 과제들

건축분과 문화재위원회에서 지광국사탑의 원주 법천사지 이전을 결정했으나, 최종적인 이전 위치 선정은 과제로 남았다. 현재는 법천사지 승탑 위치에 보호각을 세워 복원하는 방안과 법천사지 내 건립을 추진 중인 전시관 내부로 탑과 탑비를 함께 이전하여 보존 · 전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실제 원주시는 지난 15년간 진행된 법천사지 발굴과정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종합 전시 · 홍보하는 전시관 건립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법천사지 본래 위치에 복원은 보호각 설치가 필수적이며, 이로 인한 주변 경관 저해 문제가 된다. 반대로 전시관 이전은 최적의 보존환경은 보장되지만 이전 복원의 역사적 진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올해 보존처리가 완료되는 지광국사탑 최종 이전 위치는 향후 보존환경이 석탑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와 관계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키로 했다"면서 "외부 환경 등으로부터 탑을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 채식주의 전통 '능가경'서 시작"

함형석 전남대 교수
호남불교硏 콜로키움서

초기불교 청정육 섭취 가능
능가경 중심으로 한 세력이
'세 가지 청정' 비불교화해



초기 불교에서 '세 가지 청정한 고기'를 허용했다는 사실은 불교를 공부한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는 알려진 이야기다. 그렇다면 한정적 육식이 가능했던 불교가 완전한 채식주의 전통을 갖게 된 이유는 어디 있을까.

함형석 전남대 철학과 교수〈사진〉는 6월 19일 전남대 호남불교문화연구소가 개최한 제1회 콜로키움에서 "불교의 채식주의 전통이 〈능가경〉에서 시작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육식의 기억을 조작하기- 〈능가경〉은 어떻게 불교에 채식주의를 도입하였는가'를 주제로 발제한 함형석 교수는 〈능가경〉의 8번째 품인 '비(非)육식에 관한 장'을 주요 텍스트로 채식주의 전통이 어떻게 확립됐는지를 분석했다.

함형석 교수에 따르면 기원 후 400년 이후 나타난 몇몇 대승불경이 도입한 새로운 변화는 '채식주의'였다. 채식주의는 데비닷타가 붓다에게 제안한 다섯 가지 중 하나였고, 당시 이들의 주장은 불교 승가를 분열시키는 행위였다.

함형석 교수는 불교의 식사 문화는 불교 교리보다는 사회적인 압력 아래서 진화했음을 밝힌 선행 연구들을 전거로 채식주의 전통도 비슷한 과정으로 도입됐음을 추적했다. 이에 대해 그는 "'비(非)육식에 관한 장'에 깊게 배어 있는 타인에 대한 염려는 타종교 경쟁 그룹과 대중의 비판적인 시선 아래서 이뤄졌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설명했다.

또한 〈능가경〉은 청정한 고기의 세 가지 조건을 살생의 양상으로 대치시켰다. 함형석 교수는 "'비(非)육식에 관한 장'은 세 가지 지점에서의 청정이라는 기존 규칙을 비불교 전통서 비롯되는 살생의 정의로 대체했다"면서 "이를 통해 '비(非)육식에 관한 장'은 기조의 권위를 완전히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새로운 교설을 정당화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비(非)육식에 관한 장'은 나아가 선제적으로 동료 불교도들의 미래 저항을 예언하고 이들을 사이비 불교도로 낙인찍었다"고 분석하며 "이 같은 방식으로 '비(非)육식에 관한 장'은 불교도들의 미래 기억을 편집했고 불교의 미래 역사를 완전한 채식주의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신성민 기자

부여 왕흥사지 출토 사리기 국보 지정

문화재청 공고… 대둔사 삼장보살도 등 보물로

부여 왕흥사지서 출토된 사리기 일괄이 국가지정문화재인 국보로 지정됐다. 또한 구미 대둔사 삼장보살도 등 고려~조선시대 조성된 불화, 불상이 잇달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이름을 올렸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사리기인 '부여 왕흥사지 출토 사리기'를 국보로 지정하고, '조선왕조실록' 96책을 확인해 국보로 추가 지정했다"고 6월 25일 밝혔다.

국보 제327호로 지정된 '부여 왕흥사지 출토 사리기'는 지난 2007년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가 백제 왕실 사찰인 왕흥사지 목탑지에서 발굴한 유물로,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사리기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사리기는 겉에서부터 순서대로 청동제사리함-은제사리호-금제사리병 순의 3가지 용기로 구성돼 있으며, 청동제사리함 겉면에 새겨진 명문을 통해 577년(위덕왕 24년)에 만들어진 사실이 확인됐다. 제작 시기가 명확한 사리기로서, 연대가 가장 빨라 우리나라 사리기의 선구적인 위치에 있다.

문화재청은 "6세기 전반 사리공예품의 대표작으로 평가받는 '부여 왕흥사지 출토 사리기'는 백제 왕실 공예품이라는 역사 · 예술적 가치, 현존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절대 연대를 가진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6월 26일 '구미 대둔사 삼장보살도' 등을 비롯한 불교문화재와 초기 철기 시대 거푸집과 청동거울, 통일신라 시대 도기(陶器) 등 10건을 보물로 지정했다.

보물 제2025호로 지정된 '구미 대둔사 삼장보살도'는 1740년(영조 16년)에 영산회상도 · 제석도 · 현왕도 · 아미타불도와 함께 조성돼 대둔사에 봉안됐던 작품으로, 이중 삼장보살도만 유일하게 전해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사리기인 '부여 왕흥사지 출토 사리기' 일괄.

'김천 직지사 괘불도'는 보물 제2026호로 지정됐다. 1803년(순조 3년)에 제작된 김천 직지사 괘불도는 현재까지 알려진 19세기 괘불 중 시기가 가장 빠르고 규모도 가장 크다.

보물 제2031호로 지정된 '고창 선운사 참당암 석조지장보살좌상'은 고려 말~조선 초에 유행한 두건을 쓴 지장보살좌상이다. 보주를 든 두건 지장의 정확한 도상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여말 선초의 지장 신앙과 지장도상 연구에 귀중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신성민 기자

